

# 韓國經濟와 勞動所得 分配率의 變化\*

朴 東 雲 · 金 愛 實\*\*

## < 目 次 >

I. 序 論	間의 關係
II. 勞動所得 分配率의 變化趨勢	2. 技術의 二重構造
1. 勞動所得의 定義	3. 賃金의 二重構造
2. 勞動所得 分配率의 國際比較	4. 大企業의 成長과 勞動所得 分
3. 韓國의 勞動所得 分配率의 變 化趨勢	配率의 變化와 展望
III. 勞動所得 分配率의 變化量 決定 하는 要因	IV. 結 論
1. 勞動生産性 增加와 賃金 增加	1. 要 約
	2. 政策의 示唆點

## I. 序 論

1930年代에 J.M. Keynes가 勞動所得 分配率의 安定性은 “약간의 奇蹟”<sup>1)</sup>이라고 표현한 이래 이에 관한 研究는 아직 이렇다할 結論을 짓지 못한 채 계속되어 오고 있다. 勞動所得 分配率에 관한 研究는, 理論面에서는 그동안 安定性에 관한 說明이 支配的이었으나 實證面에서는 그 變化가 거의 어느 나라에 있어서나 增加의 추세를 보여오고 있어서, 理論과 實證과의 「갭」을 내포하고 있다.

그런데 韓國의 勞動所得 分配率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특이한 性격을 나타내고 있다. 그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은 편인데 6, 70年代의 高度成長 기간동안에는 減小 또는 安定의 추세를, 그리고 70年代末의 不況 기간 동안에는 빠른 增加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韓國의 勞動所得 分配率의 變化가 高度成長 기간 동안 減小 또는 安定의인 것이라면 長期에 있어서도 그것은 현재처럼 낮은 水準에 머물러 있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 이 論文은 產學協同財團의 研究費 支援으로 쓴 것임을 밝히려 한다.

\*\* 朴東雲 : 檀國大學校 經濟學科 副教授, 經濟學博士.

金愛實 : 韓國外國語大學校 經濟學科 助教授, 經濟學博士.

1) E.H. Phelps Brown & P.E. Hart, “The Share of Wages in National Income,” *The Economic Journal* (June, 1952), p. 255.

勞動所得 分配에 관한 研究가 國內外 學者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앞에서 제기된 문제에 관한 研究는 드물다고 생각된다.<sup>2)</sup> 이 글의 目的은 技術과 賃金の 二重構造 성격을 지닌 韓國經濟가 그동안 大企業 위주로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勞動所得 分配率은 高度成長 기간 동안에도 減小 또는 安定的 추세로 변화해왔다는 것을 설명하려는 데 있다. 序論에 이어 Ⅱ節에서는 勞動所得 分配率의 변화 추세를 국제적으로 비교하고 Ⅲ節에서는 技術과 賃金の 二重構造와 관련하여 大企業의 發展이 勞動所得 分配率의 변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끝으로 Ⅳ節에서는 要約과 政策的 示唆點을 제시하고 있다. 참고로 韓國 製造業에 관한 여러가지 經濟指標을 附錄으로 收錄하고 있다.

## Ⅱ. 勞動所得 分配率의 變化趨勢

Ⅱ節에서는 먼저 이 글에서 사용하고 있는 勞動所得의 定義를 論하고 國際比較를 통한 韓國의 勞動所得 分配率의 변화 추세를 설명하고자 한다.

### 1. 勞動所得의 定義

勞動所得이란 生産活動에 참여한 代價로 生産要素인 勞動에게 지급되는 所得을 말한다. 그러나 이와같은 定義를 바탕으로 勞動所得에 관한 資料를 얻기란 쉬운일이 아니다. 예를 들면 自營業主와 無給家族從事者등의 경우에는 비록 그들이 經濟活動에 참여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받는 代價는 資料上的 賃金所得——被傭者報酬나 製造業 給與額——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賃金所得만으로 勞動所得을 규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것은 현재 어느 나라에 있어서나 일반적인 문제로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勞動所得에 관한 近似値는 國民所得에 대한 被傭者報酬나 製造業 給與額을 바탕으로 自營業主와 無給家族從事者 등까지도 포함하여 再調整함으로써 얻을 수 있으나 이같은 방법도 결코 만족할만한 推計値를 제공해 주지는 못한다<sup>3)</sup>.

이러한 觀點에서 볼 때 勞動所得 分配率의 國際比較란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에서는 資料上的 賃金所得을 勞動所得으로 간주해서

2) 최근 H.Lydall은 所得分配의 理論과 實證에 관해서 포괄적인 요약을 하고 있다. H.Lydall, *A Theory of Income Distribution* (Oxford University Press, 1979).

3) A.B. Atkinson은 이에 관한 몇 가지 方法을 제시하고 있다. A.B. Atkinson, *The Economics of Inequality* (Clarendon Press, 1975), pp.161~8. 이와같은 方法을 사용하여 裴茂基교수는 韓國의 勞動所得分配率을 推計한 바 있다. 裴茂基, 「所得分配」, 邊衡尹 金潤煥편저, 韓國經濟論(裕豐出版社, 1977), pp.575-86.

사용하기로 한다. 거기에는 두가지의 이유가 있다. 첫째, 이 글은 勞動所得 分配率의 수준보다는 그 변화율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둘째,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들은 U.N.이 권장하는 推計方法를 따르고 있어서 여러 나라의 被傭者報酬나 製造業 給與額 資料에는 일관성이 있기 때문이다.<sup>4)</sup>

## 2. 勞動所得 分配率의 國際比較

〈表一〉은 先進國의 國民所得에 대한 被傭者報酬 比率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르면 美國을 비롯한 9개 先進國의 被傭者報酬 比率은 1938年~68年 기간에 45%~67%로부터 65%~75%로 증가해왔고 이같은 추세는 1970年代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다.

〈表一〉 國民所得에 대한 被傭者報酬 비율 (1938~68) (단위 : %)

연 도			1938	1948	1958	1968
국 명						
벨	지	움	45	52	57	62
카	나	다	63	63	68	71
프	랑	스	50	54	59	63
서		독	54	58	60	64
아	일	랜드	54	51	56	60
노	르	웨이	55	58	65	68
스	웨	덴	52	61	66	72
영		국	63	70	73	75
미		국	67	64	71	72

資料 : A.B. Atkinson, *The Economics of Inequality* (Clarendon Press, 1975), p. 167.

被傭者報酬 비율의 세계적인 증가 추세를 바탕으로 최근 H. Lydall은 “...현재 이용이 가능한 증거에서 얻을 수 있는 일반적인 결론은 실제로 어떠한 정의물<sup>5)</sup> 사용한다 하더라도 勞動所得 分配率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것은 아니다”<sup>6)</sup>라고 쓰고 있다. 또한 J. King과 P. Regan은 “相對的 分配의 장기적 안정성에 관한 假說은 棄却되어야 한다”<sup>7)</sup>라고 주장하고 있다.

〈表二〉는 시간적인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高度成長과 産業構造의 변화를 경험한 바 있는 韓國, 臺灣, 그리고 日本의 勞動所得 分配率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4) U.N.의 권장을 따르고 있는 韓國의 경우에, 예를들면, 被傭者 報酬는 “피용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와 노임(현금 및 현물) 및 기타 노동소득은 물론 사회보장제도에 따라 지급되거나 귀속되는 분담금(고용주부담), 개인연금, 가족수당등 기타 제도에 따른 고용주 분담금이 모두 포함된다”(한국은행, 韓國의 國民所得 1978, p. 26)로 정의되어 있는데 이 정의는 거의 어느 나라에 있어서나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5) H. Lydall, *op. cit.*, p. 135.

6) J. King & P. Regan, *Relative Income Shares* (The Macmillan Press LTD, 1976), p. 26.

〈表-2〉 國民所得에 대한 被傭者報酬 비율 (1955~79) (단위: %)

국명 \ 연도	1955	1960	1965	1970	1975	1976	1977	1978	1979
韓 國	30.0	37.4	31.8	39.6	39.1	40.9	43.7	46.1	46.3
臺 灣	45.6	45.4	48.9	53.6	58.8	58.3	58.8	59.1	60.8
日 本	49.5	50.0	55.3	53.6	66.5	66.8	67.5	66.2	67.5

資料: 韓國, 韓國銀行, 경제통계연보 1981.

臺灣, 行政院主計處, *Industry of Free China* (May, 1981).

日本, 經濟企劃廳調查局, 經濟要覽 1981.

이에 따르면, 韓國의 被傭者報酬 比率은 1960년~75년 동안에 약 40%수준에서 약간의 기복은 있지만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해오다가 70年代末에 가서야 빠른 증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70年代末의 증가 추세는 韓國經濟가 극심한 不況을 겪었던 시기에 있었던 것으로 이에 대한 해석은 달리해야 할 필요가 있을것 같다.<sup>7)</sup> 한편 1955년에 45.6%를 기록했던 臺灣의 被傭者報酬 比率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 1979년에는 60.8%를 나타내고 있다. 日本의 경우에도 臺灣과 비슷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1955년의 49.5%에서 1979년에는 67.5%로 증가하고 있다.

〈表-3〉은 여러 나라의 製造業 附加價值에 대한 給與額 比率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르면, 韓國의 製造業 給與額 比率은 「에티오피아」를 제외하고는 어느 나라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이 比率은 先進國 中進國 할 것 없이 일반적으로 30%~50%를 기록하고 있으며 臺灣은 이미 1966년에 33%를, 그리고 日本은 1974년에 34%

〈表-3〉 製造業 附加價值에 대한 給與額 비율 (단위: %)

국 명	연 도	비 율	국 명	년 도	비 율
이 집 트	1972	50.4	인 도	1963	47.1
케 나	1963	40.9		1974	47.2
	1974	37.6	이 스 라 엘	1963	46.0
에 티 오 피 아	1973	23.3		1975	36.9
우 간 다	1963	32.9	일 본	1963	33.6
	1971	42.2		1974	35.4
카 나 다	1963	50.4	한 국	1963	26.3
	1970	53.1		1974	24.2
	1974	46.6	대 만	1966	32.9
미 국	1963	52.0	덴 마 크	1974	62.9
	1967	46.7	이 태 리	1974	36.9
	1974	44.1	스 페 인	1975	51.9

資料: U.N., *Statistical Yearbook* 1976.

7) pp.522-3에서 다시 언급될 것이다.

를 기록하고 있으나 韓國은 高度成長 기간인 1974년에 겨우 24%를 기록하고 있을 뿐이다.

勞動所得 分配率의 國際比較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첫째, 韓國의 勞動所得 分配率은 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으며 둘째, 高度成長 기간 동안 臺灣과 日本의 勞動所得 分配率은 증가했지만 韓國의 그것은 안정적이었는가 하는 점이다. 물론 첫째 질문에 대한 해답은 產業構造와 관련해서 雇傭構造에 관한 분석을 통해서 얻을 수 있지만 둘째 질문에 대한 해답은 쉽게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어떠한 經濟構造面에서 70年代 중반의 韓國은 50年代 초반의 日本이나 60年代 중반의 臺灣과 비슷하다고 할 때<sup>8)</sup> 이들 두 나라가 韓國과는 달리 高度成長의 기간에도 지속적인 勞動所得 分配率의 증가를 경험했다는 사실은 우리의 관심이 아닐 수 없다.

### 3. 韓國의 勞動所得 分配率의 變化趨勢

韓國經濟에 있어서 勞動所得 分配率의 변화를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韓國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表-4〉는 韓國의 年度別 國民所得에 대한 여러가지 分配所得 비율과 製造業 附加價値에 대한 給與額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 表는 특히 法人利潤 分配率의 변화 추세를 알아보기 위해서 分配國民所得計定을 조정한 것이다.

韓國의 被傭者報酬 비율은 1次5個年計劃이 시작된 1962년에는 36.1%였는데 1965년까지에는 다소 감소하다가 1966년에는 36.7%를 기록한 후 약간의 증감 추세를 보이면서 1973년에는 다시 1962년과 같은 36.1%를 나타내고 있다. 이 비율은 그 후 계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不況期인 70年代末에는 그 증가속도가 가속화되어 1979년에는 무려 46.3%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農業所得이 전체의 약 1/3을 차지하고 있는 非法人企業所得 비율은 1962년의 47.6%에서 계속적으로 감소하다가 1979년에는 30.2%로 떨어지고 있다. 非法人企業所得 비율의 감소는 先進國의 發展過程에서 일반화되어 있 듯이 經濟發展過程에서 自營業主나 無給家族從事者 등의 구성비 감소로 인해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로 받아드려지고 있다.<sup>9)</sup> 그러나 이 비율이 先進國에서는 2%~3%에 불과하나 韓國에서는 1979年 현재 30%에 이르고 있다. 이것은 韓國經濟에서 農業의 비중이 아직도 높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韓國經濟가 產業構造나 雇傭構造面에서 아직 高度化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

8) K.S. Kim & M. Roemer, *Growth and Structural Transformation-Studies in the Moderniz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1945~75* (Havard University Press, 1979), pp. 137~52.

9) H. Lydall, *op. cit.*, p. 121.

〈表—4〉

## 韓國의 分配所得 비율과 製造業 給與額 비율

(단위 : %)

年 度	62	63	64	65	66	67	68	69	70
項 目									
被 傭 者 報 酬	36.1	30.7	28.1	31.8	33.0	36.7	37.5	38.7	39.5
非 法 人 企 業 所 得	47.6	54.4	58.1	51.9	49.9	44.3	42.5	42.6	40.8
財 產 所 得 <sup>1)</sup>	10.5	9.2	8.9	9.9	10.6	12.1	12.1	12.0	12.2
利 潤 所 得	4.7	4.5	3.7	4.9	5.1	5.3	5.5	5.8	5.9
其 他	1.1	1.2	1.2	1.5	1.4	1.6	2.4	0.9	1.6
計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製 造 業 給 與 額		25.6	25.1 <sup>2)</sup>	24.8 <sup>2)</sup>	24.2	25.8	25.6	25.1	25.1
年 度	71	72	73	74	75	76	77	78	79
項 目									
被 傭 者 報 酬	39.5	39.4	37.2	36.1	38.4	40.1	42.5	46.1	46.3
非 法 人 企 業 所 得	42.1	41.7	43.2	43.6	40.8	37.9	35.6	31.5	30.2
財 產 所 得 <sup>1)</sup>	11.4	11.1	10.4	9.9	10.7	10.8	11.0	11.8	13.4
利 潤 所 得	5.6	6.1	8.2	9.5	9.2	9.9	9.9	9.6	9.1
其 他	1.4	1.7	1.0	0.9	0.9	1.3	1.0	1.0	1.0
計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製 造 業 給 與 額	23.4	23.5	22.5	24.2	23.0	24.8	26.1	27.1	31.7

資料 :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경제기획원,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註 : 1) 財産所得은 賃料, 利子, 配當을 포함하지만 여기에서는 편의상 配當을 제외하고 있음.

2) 한국은행자료를 바탕으로 筆者가 계산했음.

다. 利子和 賃料만을 포함하고 있는 財産所得 비율은 약 11% 정도에서 비교적 안정적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法人利潤所得 비율은 유일하게 높은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1962년의 4.7%에서 1979년에는 두 배에 가까운 9.1%를 기록하고 있다.

韓國의 分配國民所得의 항목별 分配率의 변화 추세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첫째, 高度成長 기간 동안 韓國의 被傭者報酬 비율의 변화는 왜 감소 또는 안정적이었는가 둘째, 이 기간 동안 利潤所得 비율의 빠른 증가는 무엇을 뜻하는가 하는 점이다.

한편 製造業의 경우는 어떠한가(〈表—4〉 참조). 製造業의 給與額 비율은 1963년의 25.6%에서 약간의 기복은 있지만 일반적으로 60年代 후반과 70年代 전반의 高度成長기간을 통해 감소의 추세를 보이다가 1973년에는 가장 낮은 22.5%를 기록하고 있다. 그 후 이 비율은 다소 증가해오다가 1977년에는 1963년보다 약간 높은 26.1%를 보여주고 不況期인 70年代末에는 급격히 증가하여 1979년에는 무려 31.7%를 나타내고 있다. 製造業의 給與額 비율의 변화는 被傭者報酬 비율과 비슷한 추

세를 보여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기되는 문제 역시 年平均 약 20%의 成長率을 기록한 製造業의 高度成長 기간 동안 왜 勞動所得 分配率은 감소 또는 안정의 추세를 나타냈는가 하는 점이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韓國 製造業의 勞動所得 分配率의 수준에 관해서 두가지를 언급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첫째 「기업경영분석」資料에 의하면 勞動所得 分配率은 1979年の 경우 61.3%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비율은 어느 年度에서나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에 비해 두 배 정도나 과대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기업경영분석」資料는 標本 크기에 있어서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에 비교할 바가 못될 뿐만 아니라 勞動所得 分配率이란 企業家 側에는 賃金費用 비율이 되기 때문에 「기업경영분석」資料는 과대평가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둘째, 自營業主나 無給家族從事者들을 포함해서 資料上的 賃金所得을 재조정한다해도 勞動所得 分配率은 약 10% 정도 높아질 뿐이다.<sup>10)</sup> 사실상 1979年の 경우 自營業主나 無給家族從事者 수는 製造業 총취업자 가운데서 약 1.5% 정도에 지나지 않으므로 資料上的 給與額 비율은 크게 과소평가 되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 Ⅲ. 勞動所得 分配率의 變化를 決定하는 要因

Ⅲ節에서는 韓國의 勞動所得 分配率이 어떻게 결정되어 왔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먼저 勞動生産性和 賃金과의 관계를 논한 다음 韓國과 같이 技術과 賃金이 二重構造의 성격을 띄고 있는 經濟에서는 大企業主導의 經濟成長은 勞動所得 分配率을 증가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고자 한다. 資料의 제약 때문에 分析은 주로 製造業에 한정되어 있다.

#### 1. 勞動生産性 增加와 賃金 增加 間의 關係

이제 勞動所得 分配率을 國民所得 가운데서 勞動所得이 차지하는 비율로 나타내기로 하자. 勞動所得 分配率을  $S_L$ , 勞動所得을  $W \cdot L$  ( $W$ : 1人當 平均 名目賃金,  $L$ : 雇傭者數), 그리고 名目 國民所得을  $Y$ 로 나타내면

$$S_L = \frac{W \cdot L}{Y}$$

위의 式을 고쳐쓰면,

10) Wontack Hong, *Trade, Distortions And Employment Growth in Korea* (KDI, 1979), p. 362.

$$S_L = \frac{W}{P} \cdot \frac{L}{y} \quad (P: \text{物價指數}, y: \text{實質國民所得})$$

$$= \frac{w}{\frac{y}{L}} \quad (w: \text{1人當平均實質賃金}, \frac{y}{L}: \text{勞動生產性})$$

위의 式을 時間에 對해 微分하고 兩邊을  $w/\frac{y}{L}$ 로 나누면

$$\frac{\dot{S}_L}{S_L} = \frac{\dot{w}}{w} - \frac{\left(\frac{\dot{y}}{L}\right)}{\left(\frac{y}{L}\right)}$$

따라서 위의 式은

勞動所得 分配率 變化率 = 實質賃金 變化率 - 勞動生產性 變化率

임을 의미하게 된다. 즉, 勞動所得 分配率의 變化를 實質賃金의 變化와 勞動生產性的 變化와의 차이로써 설명할 수 있다. 만일 實質賃金 變化율이 勞動生產性 變化율 보다 크면(작으면) 勞動所得 分配率は 증가(감소)하고 두 變化율이 같으면 勞動所得 分配率は 일정하다.

〈表-5〉는 韓國 製造業의 1人當 平均 名目賃金, 1人當 名目 附加價值,<sup>11)</sup> 그리고

〈表-5〉 韓國製造業의 1人當 名目賃金 및 附加價值 증가율과 給與額 비율 (단위: %)

	年 平 均 增 加 率		給與額 比率
	1인당 명목임금	1인당 부가가치	
1 9 6 6			24.22
1 9 6 7	23.37	15.89	25.78
1 9 6 8	25.06	26.13	25.56
1 9 6 9	25.09	27.57	25.07
1 9 7 0	24.24	24.25	25.06
1 9 7 1	19.01	27.50	23.39
1 9 7 2	14.06	13.49	23.51
1 9 7 3	23.49	29.00	22.51
1 9 7 4	29.57	20.65	24.71
1 9 7 5	32.02	38.48	23.04
1 9 7 6	28.06	19.16	24.76
1 9 7 7	29.53	22.91	26.10
1 9 7 8	38.23	33.00	27.12
1 9 7 9	31.20	12.14	31.73

資料: 附錄 참조

11) 똑같은 物價指數를 사용해서 名目賃金과 名目附加價值를 實質値로 바꾸면 그 결과는 분석상 아무런 차이를 나타내지 않으므로 表에서는 名目値로 나타내고 있다.

勞動所得 分配率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르면 賃金 증가가 勞動生産性 증가보다 낮았던 해는 1968, 69, 70, 71, 73, 75年으로서 그 결과로 1966年~76年 사이에 勞動所得 分配率의 변화는 감소 또는 안정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1976年 부터 賃金 증가는 勞動生産性 증가보다 훨씬 앞서고 있어서 勞動所得 分配率은 그 이전에 비해서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볼 때 勞動所得 分配率의 增減은 賃金 증가율과 勞動生産性 증가율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 2. 技術의 二重構造

이 글에서 언급한 技術의 二重構造란 한 經濟內에서 企業들이 새로운 技術(modern new technology)과 낡은 技術(old craft technology)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로 간단히 定義한다. 企業의 規模의 차이는 이에 관한 한 代表的인 例가 될 수 있다. 이같은 定義를 바탕으로 여기에서는 技術의 二重構造가 韓國經濟에서 어떻게 발전되어 왔고 그 결과는 韓國의 勞動所得 分配率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 (1) 要素價格의 歪曲과 資本集約度の 深化

新古典學派의 生産函數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Y=f(K, L) \quad (Y: \text{附加價值}, K: \text{資本量}, L: \text{勞動量})$$

만일 이 生産函數가 一次同次函數라면,

$$\frac{Y}{L}=f\left(\frac{K}{L}\right), f' \geq 0$$

또한 만일 資本과 勞動의 사용이 生産要素의 相對價格의 변화에 따라 代替 가능하다면,

$$\frac{K}{L}=g\left(\frac{W}{r}\right), g' \geq 0 \quad (W: \text{賃金}, r: \text{利子率})$$

결과적으로,

$$\frac{Y}{L}=h\left(\frac{W}{r}\right), h' \geq 0$$

위의 式은 주어진 生産量에서 勞動生産性은 生産要素의 相對價格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어떤 이유로 인해 利子率이 낮아지거나 賃金이 오르거나 또는 위와 같은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게 되면 상대적으로 賃金—利子率 비율이 높아지게 되므로 利潤極大化를 試圖하는 生産者는 資本—勞動 비율을 높히게

되어 그 결과로 勞動生産性은 증가하게 된다.

貨金, 金融, 財政政策 등에 의한 貨金—利子率 비율의 증가로 표현되는 要素價格의 歪曲은 企業家들로 하여금 資本集約의인 生産方法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後進國의 失業 문제는 6, 70年代를 통해 더욱 惡化된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sup>12)</sup> 韓國도 물론 예외는 아니다.

洪元卓교수는 韓國經濟의 資本集約度の 深化를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韓國에서 1人當 資本量은 1953年에서 1966년까지의 14年 동안에 약 30%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았으나 1966年 이후에는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1人當 純資本量은 1966年~76年 동안에 거의 170%나 증가했으나 급격한 雇傭의 증가로 말미암아 雇傭者當 固定資本量은 120% 정도로 증가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도 이 기간 동안 韓國에서 전반적으로 대단한 資本深化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sup>13)</sup>

製造業의 경우 資本—勞動 비율의 증가는 1966年~73年 기간 동안 年平均 9%나 되고 있다.

그러면 韓國經濟의 資本集約度の 深化는 무엇에 기인하는가? 洪元卓교수는 그 원인을 國內貸出利子率, 海外借款利子率 및 海外借款의 先別的 配分, 社會間接資本에 대한 政府投資, 그리고 換率 및 關稅政策 등 여러 가지 高度成長政策에서 찾고 있다. 그에 의하면 韓國政府는, 高度成長 기간 동안 製造業의 貸出實質利子率이 1967年~73年에 걸쳐 平均 -10%였던<sup>14)</sup> 것과 같이 金利面에서 資本의 사용에 特惠를 주어왔고, 海外資本의 貸出利子率도 國內資本의 경우보다 낮게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海外資本의 配分에 있어서도 統制를 통한 先別政策을 썼고, 社會間接資本 부문에 政府가 직접 投資함으로써 民間投資의 收益率을 높여 주었고, 海外資本과 技術의 導入에 있어서는 換率의 낮은 수준과 關稅의 免除 등을 통해 유리한 정책을 사용해 왔다는 것이다. 물론 그 결과는 要素價格의 歪曲으로 나타나고 있다. 1967年~73年 사이에 製造業의 年平均 實質貨金 증가율은 13%였으나 年平均 貸出 實質利子率은 -10%가 되고 있어 貨金—利子率( $W/r$ )의 年平均 증가율은 23%에

12) D. Morawetz, "Employment Implications of Industrializ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A Survey," *The Economic Journal* (Sept., 1974), pp. 491~542. T. Ruprecht, "Output Stimulation and Employment Stagnation—Policy By-Product in the Phillippines,"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Oct., 1968), pp. 77~88.

13) Wontack Hong, *op. cit.*, p. 236.

14) Wontack Hong, *op. cit.*, p. 236.

이르고 있다.<sup>15)</sup> 따라서 資本集約度の 深化 현상은 要素價格의 歪曲으로 인해 더욱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要素價格의 심한 歪曲을 초래한 韓國의 成長政策이 相對的 所得分配에 미친 영향은 特記할만 하다. 韓國 製造業의 경우, 年平均 資本에 대한 收益率は 1954年~61年 간에 12%, 1962年~66年 간에 17%, 1967年~71年 간에 26%, 그리고 1972年~76年 간에 27%로서<sup>16)</sup> 50年代부터 70年代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技術發展이 資本의 限界生産性이 遞減하는 것을 相殺해주지 않는다면 經濟가 발전해감에 따라 資本에 대한 收益率は 감소하기 마련이고 이것은 先進國에 있어서 일반적인 현상인데 韓國에서는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물론 韓國에 있어서 資本에 대한 收益률이 증가해온 이유는, 그동안 政府投資에 의한 社會間接資本의 축적, 內部 및 外部의 規模經濟, 人的資本의 축적, 그리고 輸出主導型 高度成長 과정에서 얻게 된 市場擴大와 技術向上등에 있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資本에 대한 收益率의 증가는 利潤率의 증가로 나타날 것이 기대된다. 이미 앞에서 지적했듯이, 高度成長 기간 동안 被傭者報酬 비율은 감소 또는 안정의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는 달리 法人利潤率은 1962年~79年 사이에 거의 두 배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資本에 대한 收益率의 증가에 따른 利潤率의 증가 때문이 아닌가 풀이된다.

다음에는 企業規模에 따른 資本集約度の 차이를 비교해보기로 하자. 1968年の 경우, 製造業의 小企業 平均 1人當 資本量은 1,300달러였으나 大企業은 2,400달러로 小企業보다 거의 두 배나 높다.<sup>17)</sup> 1970年の 경우에도 大企業과 小企業간의 資本集約度の 차이는 1968年과 거의 비슷하다.

그렇다면 企業規模 간의 資本集約度の 차이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가? 일반적으로 小企業은 大企業에 비해 상대적으로 勞動集約的인 生産方法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企業의 規模가 작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資本의 稀少성과 관련해서 資本의 價格이 덜 歪曲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일 그렇다면, 韓國에서처럼 賃金は 일반적으로 競爭에 의해서 결정되고<sup>18)</sup> 資本의 價格은 成長政策에 의해서 결정되어 要素價格의 歪曲이 일어나고 資本의 先別的 配分이 大企業측에 더욱 유리하게 될 때 資本集約度는 企業規模에 따라 더욱 深化되리라는 결론이 나온다.

15) Wontack Hong, *op. cit.*, p. 236.

16) Wontack Hong, *op. cit.*, p. 262.

17) Wontack Hong, *op. cit.*, p. 249.

18) 韓國에서는 賃金決定이 부분적으로 政府의 主導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勞動組合의 세력이 인정되지 않고 있거나 最低賃金制와 같은 賃金政策이 없거나 또는 民間部門은 競爭試驗을 통해 有能한 社員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게 생각할 뿐이다.

韓國 製造業의 産業別 資本—勞動 비율의 증가의 차이는 이에 관한 좋은 實證이 될 수 있다.<sup>19)</sup> 일반적으로 中小企業이 主宗을 이루고 있으며 勞動集約的 生産方法을 사용하고 있는 섬유산업의 경우에 資本—勞動 비율의 증가는 大企業이 主宗을 이루고 있으며 資本集約的 生産方法을 사용하고 있는 重化學系列의 산업에 비해 훨씬 낮게 나타나 있다. 또한 1960年~75年 사이에 製造業 平均 1人當 資本量의 증가는 2.7배에 이르렀으나 식료, 섬유, 의복, 가죽, 기타제조업의 中小企業 경우에는 資本集約度의 증가가 平均値보다 낮게 나타나 있다. 한편 비료, 기타화학, 석유, 비금속제조업의 大企業의 경우에는 그것이 平均値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런데 後者의 경우에는 前者에 비해서 國內 및 海外資本의 貸出이 훨씬 많았던 것이다. 韓國 製造業의 資本集約度에 관해서 洪元卓교수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製造業部門 전체의 平均 資本集約度의 높은 증가는 부분적으로는 資本蓄積과 관련된 貸金—利子率 비율의 상승 때문에, 또 부분적으로는 國內 및 海外資本의 貸出과 관련된 利子率 補助 때문에 일어났을지도 모른다.”<sup>20)</sup>

## (2) 大企業의 成長과 寄與

앞에서 우리는 韓國의 高度成長政策이 企業規模別 資本—勞動 비율의 증가에서 隔差를 가져왔고 그 결과로 技術의 二重構造가 발전되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제 大企業의 成長이 勞動所得 分配率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二重的 技術模型을 소개하고자 한다.

앞에서 定義한 대로 經濟가 技術面에서 二重構造의 하나는 技術과 새로운 技術—성격을 띄고 있고 新古典學派의 生産理論이 이에 적용된다고 가정하자. 分析을 쉽게 하기 위해 技術進步가 中立的이고 모든 要素混合에서 새로운 技術이 낡은 技術보다 더 높은 生産性を 가져온다고 가정하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企業들은 낡은 技術을 버리고 높은 生産성과 收益率을 가져오는 새로운 技術을 導入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어느 한 時點에서 본다면 企業은 두가지의 生産技術중 어느 하나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제 낡은 技術을 사용하는 측을 前近代의 部門(添字 1), 새로운 技術을 사용하는 측을 近代의 部門(添字 2)이라고 부르면 어떤 産業의 平均 勞動生産性は 다음과 같다.

$$\frac{Y}{L} = \left( \frac{L_1}{L} \right) \left( \frac{Y_1}{L_1} \right) + \left( \frac{L_2}{L} \right) \left( \frac{Y_2}{L_2} \right) \quad (L = L_1 + L_2)$$

19) Wontack Hong, *op. cit.*, p. 243.

20) Wontack Hong, *op. cit.*, p. 251.

위의 식에 의하면, 어느 時點에서 어떤 産業의 平均 勞動生産性은 두 技術의 勞動生産性에다 雇傭者數의 비율을 加重値로 곱한 것이다. 가정에 의해  $\frac{Y_2}{L_2} > \frac{Y_1}{L_1}$  이므로, 近代의 部門에 종사하는 雇傭者數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증가할수록 平均 勞動生産性은 더 많이 증가한다. 모든 擴散理論은 近代의 部門에 종사하는 雇傭者의 비율이 logistic 함수에 따라 증가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즉,

$$\frac{L_2}{L} = \frac{1}{1 + \left(\frac{L_1}{L_2}\right) e^{-ct}}$$

여기에서  $t$ 는 새로운 技術이 어떤 企業에 導入되었을 때부터의 시간의 경과를,  $c$ 는 새로운 技術과 낡은 技術의 상대적 중요성을 나타내는 常數( $c = \frac{d}{dt} \log \left(\frac{Y_2}{Y_1}\right)$ ), 그리고  $\left(\frac{L_1}{L_2}\right)$ 는 原點에서 두 技術의 雇傭者의 비율을 나타낸다. 같은 論理로, 總生産量 가운데서 近代의 部門에 의해서 이루어진 生産量의 비율도 logistic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 즉,

$$\frac{Y_2}{Y} = \frac{1}{1 + \left(\frac{Y_1}{Y_2}\right) e^{-ct}}$$

이와같은 二重構造的 技術模型은 所得分配에 관해서 일반적인 模型과는 달리 다음과 같은 점을 示唆해주고 있다. 즉, 두 종류의 企業들이 서로 다른 賃金を 지불하고 있을 때 새로운 技術의 普及過程에서 利潤所得과 勞動所得의 상대적 비율이 변한다는 것이다. 만일 附加價值 중에서 資本家<sup>21)</sup>들에게 돌아가는 利潤所得率을  $S_K$ , 利率을  $r$ , 새로운 技術의 導入과 관련해서 生産量의 증가를 결정하는 常數를  $\lambda \left(\left(\frac{\dot{Y}}{Y}\right), \lambda \Pi_1\right)$ , 價格을  $P$ 라고 하면 利潤所得率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S_K = \frac{r \cdot K}{P \cdot Y} + \frac{\left(\frac{\dot{Y}}{Y}\right)}{P \cdot \lambda}, \quad 0 < \lambda < 1$$

위의 식에서  $\frac{r \cdot K}{P \cdot Y}$ 는 資本所得에서 오는 正常的인 資本所得 分配率이고  $\frac{(\dot{Y}/Y)}{P \cdot \lambda}$

21) 편의상 所得이 勞動所得과 資本所得으로 나누어진다고 가정한다.

22)  $W_1$ 은 前近代의 部門의 賃金,  $W_2$ 는 近代의 部門의 賃金, 그리고  $C_1$ 과  $C_2$ 는 각 部門의 單位當 生産費를 나타내나  $r_1$ 과  $r_2$ 는 같다고 가정하면,

$$\begin{aligned} S_K &= \frac{PY - W_1 L_1 - W_2 L_2}{PY} \\ &= \frac{PY - (C_1 Y_1 - r_1 K_1) - (C_2 Y_2 - r_2 K_2)}{PY} \\ &= \frac{P(Y_1 + Y_2) - C_1 Y_1 - C_2 Y_2 + rK}{PY} \\ &= \frac{rK}{PY} + \frac{\left(\frac{\dot{Y}_1}{Y_1}\right) \frac{Y_1}{Y} + \left(\frac{\dot{Y}_2}{Y_2}\right) \frac{Y_2}{Y}}{P \lambda} = \frac{rK}{PY} + \frac{\left(\frac{\dot{Y}}{Y}\right)}{P \lambda} \end{aligned}$$

는 生産量 증가에서 오는 準地代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위의 式은 生産量 증가율이 높아지면 準地代의 비율도 높아지고 이에 따라 資本家에게 돌아가는 利潤所得 分配率도 높아진다는 점을 示唆해 준다. 바꾸어 말하면, 經濟成長이 技術進步와 技術普及(技術導入과 관련해서)에 의해서 이루어 질 때 經濟成長率이 높아질 수록 勞動者에게 돌아가는 勞動所得 分配率은 상대적으로 낮아진다고 말할 수 있다.

위의 模型이 韓國經濟의 成長過程에 관해서 示唆해주는 점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미 앞에서 韓國의 大企業(近代的部門)은 中小企業(前近代的部門)에 비해 資本—勞動 비율이 약 두배 정도나 높았고 그 증가율 역시 훨씬 높았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제 초점을 大企業에 맞추고 大企業의 成長이 가져온 여러가지 결과를 분석해 보기로 하자. 이 글에서는 大企業을 轉의상 종업원수가 500人 이상인 企業規模로 분류한다.

〈表-6〉은 1966年~79年 기간 동안 韓國 製造業의 大企業의 成長을 알아보기 위해 製造業 전체에 대한 事業體數, 從業員數, 給與額 그리고 附加價值 構成費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르면, 1966년에 大企業의 事業體數 구성비는 0.5%에 지나지 않았으나 그것은 高度成長 기간 동안에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79년에는 2.0%정도에 이르고 있다. 從業員數 구성비는 1966년에 25.9%였으나 1979년에는 43.4%로, 給與額 구

〈表-6〉

韓國製造業의 大企業(500人 이상)의 成長

(단위 : %)

연 도	제조업 전체에 대한 대기업의 구성비			
	사 업 체 수	종 업 원 수	급 여 액	부 가 가 치
1 9 6 6	0.49	25.93	33.00	37.17
1 9 6 7	0.60	27.53	34.10	40.68
1 9 6 8	0.78	31.25	39.22	46.12
1 9 6 9	0.91	33.02	40.20	51.88
1 9 7 0	1.05	34.97	44.37	57.02
1 9 7 1	1.09	35.61	43.80	53.57
1 9 7 2	1.26	37.65	43.83	53.53
1 9 7 3	1.73	43.69	49.70	54.40
1 9 7 4	1.93	44.87	50.37	55.92
1 9 7 5	2.09	43.61	50.04	55.83
1 9 7 6	2.18	45.10	51.59	58.12
1 9 7 7	2.20	43.99	50.14	55.78
1 9 7 8	2.15	43.90	49.69	55.57
1 9 7 9	1.99	43.44	47.71	54.99

성비는 33.0%에서 47.7%로, 附加價值 구성비는 37.2%에서 55.0%로 각각 높은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와같이 네가지 구성비의 증가를 통해 본 大企業의 成長은 팔복할만 하다. 구성비의 증가는 當該 部門의 成長이 平均値보다 빠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으로 불과 13년 동안에 네가지 부문에서 구성비의 높은 증가는 當刻 部門의 成長이 얼마나 빨랐는가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그러면 大企業의 成長은 製造業 平均 勞働生産性 증가에 얼마나 큰 寄與를 했는가? <表-7>은 1966年, 1976年, 그리고 1979年の 製造業 平均勞働生産性에 대한 企業規模別 寄與率을 나타내고 있다(사용된 公式은 表-7에 있음).

<表-7> 平均 勞働生産性에 대한 企業規模別 寄與率 (단위: %)

항목 규모	1966년		1976년		1979년	
	기 여 율	누적기여율	기 여 율	누적기여율	기 여 율	누적기여율
5~ 9인	7.34	7.34	1.53	1.53	1.92	1.92
10~ 19인	7.83	15.17	2.02	3.55	2.60	4.52
20~ 49인	9.69	24.86	4.39	7.94	6.19	10.71
50~ 99인	8.59	33.45	6.45	14.39	7.41	18.12
100~199인	9.06	42.51	9.33	23.72	9.98	28.10
200~499인	20.30	62.81	18.17	41.89	16.90	45.00
500인 이상	37.16	100.00	58.12	100.00	54.99	100.00

資料: 附錄 참조

註: (1) 사용된 公式은  $\frac{Y}{L} = \sum \left( \frac{L_i}{L} \right) \left( \frac{Y_i}{L_i} \right)$ .

(2) 평균노동생산성을 100.0으로 보고 계산된 기여율임.

平均勞働生産性에 대한 寄與率은 規模別 從業員數 구성비와 勞働生産性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된다 (사용된 資料는 表-8이나 附錄 참조). 1966年の 規模別 寄與率은 5~9人부터 200~499人까지의 中小企業規模에서 각각 7%~20% 정도에 이르며 이들 規模에서 累積寄與率은 약 63%가 된다. 規模가 커짐에 따라 寄與率도 일반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 500人 이상의 大企業 寄與率은 약 37%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1976年の 規模別 寄與率은 1966년에 비해 크게 달라져 있다. 첫째, 5~9人부터 200~499人까지의 中小企業 規模에서 寄與率은 각각 2%~18%로 감소되고 있고, 둘째, 이들 規模에서 累積寄與率은 약 42%로서 1966년에 비해 약 20%「포인트」나 감소되고 있으며, 셋째, 500人 이상의 大企業의 寄與率은 58%로서 무려 20%「포인트」가량 증가되어 있다. 1979년에는 不況으로 인해 規模가 큰 企業(200人 이상)에서 寄與率이 약간 감소되어 있다. 따라서 다른 規模에 비해서 勞働生産性이 가장 높은 500인 이상의 大企業이, 加重値로 사용된 從業員數의 구성비에서 가장 높은 成長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大企業의 成長은 平均 勞働生産性의 증가에 결정적인 寄與를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大企業의 成長이 勞動生産性 증가에 큰 寄與는 했다 할지라도 勞動所得 分配率의 증가에도 큰 寄與를 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資本集約的 生産方法을 사용하게 되고 따라서 賃金費用 비율이 낮은 大企業의 경우에 그 成長은 勞動所得 分配率을 감소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表-8〉은 우선 資本集約도와 勞動所得 分配率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서 언급해둬야 할 것은 規模別 資本-勞動 비율에 관한 資料가 없기 때문에 新古典學派理論을 바탕으로 規模別 1人當 附加價値의 隔差를 資本集約도의 隔差로 대신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勞動生産性の 경우에는 従業員數가 500人 이상의 大企業을 100으로 할 때 企業規模가 작아질수록 隔差는 심해지고 있다. 1976年을 예로 들면, 500人 이상의 大

〈表-8〉 規模別 1人當附加價値와 給與額 비율

연도와규모	항 목	1인당부가가치 (500인 이상=100.0)	급여액 비율(%)
1966 :			
	5~ 9인	37.79	30.90
	10~ 19인	45.70	29.63
	20~ 49인	48.62	28.91
	50~ 99인	57.01	28.45
	100~199인	61.34	26.44
	200~499인	102.59	19.66
	500인 이상	100.00	21.50
	제조업 총계	69.77	24.22
1976 :			
	5~ 9인	31.68	35.51
	10~ 19인	37.02	37.56
	20~ 49인	41.92	36.51
	50~ 99인	58.27	29.39
	100~199인	56.09	31.35
	200~499인	81.44	23.47
	500인 이상	100.00	21.98
	제조업 총계	77.59	24.76
1979 :			
	5~ 9인	42.27	40.81
	10~ 19인	46.08	43.79
	20~ 49인	50.52	43.62
	50~ 99인	60.48	38.80
	100~199인	65.19	37.13
	200~499인	78.28	31.89
	500인 이상	100.00	27.53
	제조업 총계	79.00	31.73

資料 : 附錄 참조.

企業을 100으로 했을 때, 81(200~499人), 56(100~199人), 58(50~99人), 42(20~49人), 37(10~19人), 32(5~9人)이고 平均은 78이다. 規模別 勞動生産性 隔差는 일반적으로 高度成長 기간에는 深化되다가 不況期에는 다소 減소되고 있다.

賃金所得 分配率은 거의 어느 年度에 있어서나 企業規模가 커질수록 낮아지고 있다.<sup>23)</sup> 1976年の 경우에 模規別 賃金所得 分配率은 36%(5~9人), 38%(10~19人), 37%(20~49人), 29%(50~99人), 31%(100~199人), 23%(200~499人), 22%(500人 이상), 그리고 平均은 25%이다. 이것은 企業의 資本集約度가 높을수록 賃金費用 비율이 낮다는 一般論에 대한 立證이기도 하다. 그런데 年度別 規模別 賃金所得 分配率은 高度成長 기간을 통해 거의 어느 規模에서나 비슷하게 약간씩 減소해 오다가 不況期인 70年代末에 이르러서는 급격하게 增加해 오고 있다.

그러면 大企業의 成長은 製造業 平均 勞動所得 分配率 증가에 얼마나 큰 寄與를 했는가? <表-9>는 1966年, 1976年, 그리고 1979年の 製造業 平均勞動所得 分配率에 대한 企業規模別 寄與率을 나타내고 있다. (사용된 公式은 表-9에 있음)

<表-9> 平均 勞動所得 分配率에 대한 企業規模別 寄與率 (단위: %)

구분 \ 항목	1966년		1976년		1979년	
	기 여 율	누적기여율	기 여 율	누적기여율	기 여 율	누적기여율
5~ 9인	9.38	9.38	2.19	2.19	2.47	2.47
10~ 19인	9.58	18.96	3.06	5.25	3.57	6.04
20~ 49인	11.58	30.54	6.47	11.72	8.51	14.55
50~ 99인	10.08	40.62	7.66	19.38	9.06	23.61
100~199인	9.89	50.51	11.81	31.19	11.68	35.29
200~499인	16.49	67.00	17.21	48.40	17.00	52.29
500인 이상	33.00	100.00	51.59	100.00	47.71	100.00

資料: 附錄 참조.

註: (1) 사용된 公式은  $\frac{R}{Y} = \sum \left( \frac{Y_i}{Y} \right) \left( \frac{R_i}{Y_i} \right)$ . (R: 급여액)

(2) 평균 노동소득 분배율을 100.0으로 보고 계산된 기여율임.

平均 勞動所得 分配率에 대한 規模別 寄與率은 規模別 附加價值 구성비와 勞動所得 分配率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된다. 1966年の 規模別 寄與率은 5~9人부터 200~499人까지의 中小企業 規模에서 각각 9%~16%에 이르며 그 累積은 67%가 된다. 500人 이상의 大企業의 寄與率은 33%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1976년에는 5~9人부터 200~499人까지의 中小企業 規模別寄與率은 각각 2%~17%에 이르고 있는데 規模가 작은 企業(5~99人)의 寄與率은 1966년에 비해 크게 減소하고 다른 規

23) 日本과 美國의 경우에도 똑같은 현상이 발견된다. Ono Akira, "Comparative Perspectives on Labor's Share," in *The Labor Market in Japan* ed. by Shunsaku Nishikawa (University of Tokyo Press, 1980), p. 264.

模의 企業(100~499人)에서는 寄與率이 약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規模에서 累積寄與率은 48%로 1966년에 비해 약 20%「포인트」가 낮다. 그런데 1976년에 500人 이상의 大企業의 寄與率은 52%로서 1966년에 비해 약 20%「포인트」나 높다. 1979년에는 大企業의 寄與率은 1976年보다 약간 낮다. 그러면 平均 勞動所得 分配率에 대한 大企業의 寄與率의 높은 증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1966年과 1976年에 있어서 大企業의 勞動所得 分配率은 거의 똑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大企業의 勞動所得 分配率에 대한 높은 寄與率은 전적으로 附加價值 구성비의 높은 증가에 의해서 이뤄졌다. 大企業의 附加價值 구성비는 이미 언급한 대로 1966年の 37%에서 1976年에는 58%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大企業의 成長은 大企業의 寄與率을 크게 증가시키는 했으나 大企業의 勞動所得 分配率은 모든 規模 중에서 가장 낮기 때문에 製造業의 平均 勞動所得 分配率을 감소시킨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이것은 勞動生産性증가에 대한 大企業의 寄與와는 정반대되는 결과이다. 이점이 바로 高度成長 기간 동안 韓國의 勞動所得 分配率이 왜 감소 또는 안정의 추세로 변화해왔는가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된다.

### 3. 賃金の 二重構造

韓國經濟가 내포하고 있는 技術의 二重構造 때문에 大企業의 成長은 勞動所得 分配率을 감소시킨 결과를 가져왔다 할지라도 賃金の 二重構造 역시 이에 큰 몫을 담당했으리라고 생각된다. 만일 韓國의 勞動市場이 先進國에서처럼 거의 完全雇傭狀態를 이뤄왔다면 高度成長 기간 동안 勞動所得 分配率의 변화는 크게 달라졌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해서, 여기에서는 韓國經濟가 내포하고 있는 賃金の 二重構造가 어떠한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解消되어 왔으며 그 결과는 勞動所得 分配率의 변화에 어떠한 效果를 미쳤는가를 분석해보기로 한다.

먼저 賃金の 二重構造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에 관한 明快한 定義는 아직 내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先進國에 관한 研究에서는 能力이 비슷한 경우에도 雇傭部門에 따라 賃金隔差가 있다든가 또는 教育, 經驗과 같이 人的資本의 質을 결정하는 要因의 차이를 고려할 때에 賃金隔差가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賃金の 二重構造를 논의해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韓國經濟의 二重構造의 勞動市場에서 賃금이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분석한 바 있는 朴世逸박사는 위와 같은 定義는 賃金の 二重構造를 적절하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고 비판하고 있다.<sup>24)</sup> 예를

24) Se-Il Park, Wages in Korea: Determination of the Wage Levels and the Wage Structure in A Dualistic Labor Market (Ph. D. Dissertation Submitted to the Cornell University, Aug., 1980), Ch. IX.

들면, 大企業이 유능한 社員을 확보함으로써 生産性이 증가하여 그 利得이 賃金과 관련된다면 大企業이 지급하는 높은 賃金은 企業活動의 誘因과 직결되는 것이어서 구태어 그와같은 경우를 가르켜 賃金の 二重構造라고 부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賃金の 二重構造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定義를 내리고 있다.

“二重的 賃金構造란 相異한 賃金決定 構造나 過程이 함께 存在하는 것을 의미한다.”<sup>25)</sup>

이와 같은 定義는 韓國의 勞動市場 構造를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믿어 지므로 이 글에서는 賃金の 二重構造를 相異한 賃金決定 構造와 관련시켜 분석해 가기로 한다.

韓國經濟에서 賃金이 어떻게 決定되는가를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韓國勞動市場의 성격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된다. 韓國의 勞動市場이 6,70年代를 통해 勞動의 剩餘 상태를 유지해왔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동안 雇傭은 年平均 약 3.7 % 정도로 증가해왔지만 60年代부터 累積되어온 失業, 潛在失業, 그리고 農村으로부터 都市로의 人口移動 등으로 韓國은 아직 勞動力 剩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勞動力 剩餘 상태는 韓國의 勞動市場 構造를 二重化시킨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즉, 小規模와 低生産性으로 표현되는 古典學派的 勞動市場과 大規模와 高生産性으로 표현되는 新古典學派的 勞動市場이 바로 그것이다.<sup>26)</sup>

이와 같이 勞動市場이 二重構造的 性格을 띄고 있을 때 古典學派的 勞動市場에서는 技能이나 技術 수준이 낮은 勞動의 供給은 비교적 彈力的이므로 賃金은 주로 需要보다는 供給의 측면에 의해서 결정되고 新古典學派的 勞動市場에서는 技能이나 技術 수준이 높은 勞動의 供給이 비교적 非彈力的이므로 賃金은 주로 供給보다는 需要의 측면에 의해서 결정된다.

韓國經濟에 있어서 賃金の 二重構造는 <表-10> (또는 附錄참조)에 나타나 있는 企業規模別 賃金隔差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세 年度의 비교에 있어서 賃金隔差는 企業規模가 작아질수록 심해지고 있다. 500人 이상의 大企業의 賃金을 100으로 할 때 1966年の 賃金隔差는 84(200~499人), 80(100~199人), 75(50~99人), 57(20~49人), 54(10~19人), 45(5~9人)이고 平均은 79이다. 그러나 1976年の 賃金隔差는 1966년에 비해 몇몇 規模나 平均에 있어서 다소 감소하고 있으며 1979년에는 모든 規模와 平均에 있어서 그 이전 年度에 비해 훨씬 많이 감소하고 있다. 1979

25) Se-Il Park, *op. cit.*, p. 245.

26) Se-Il Park, *op. cit.*, pp. 81~7.

〈表-10〉

規模別 1人當 給與額과 給與額 비율

연도	항목	1인당급여액 (500원 이상=100.0)	급여액 비율(%)
1966 :			
	5~ 9인	54.31	30.90
	10~ 19인	62.99	26.63
	20~ 49인	65.38	28.91
	50~ 99인	75.44	28.45
	100~199인	75.44	26.44
	200~499인	93.82	19.66
	500인 이상	100.00	21.50
	제조업총계	78.59	24.22
1976 :			
	5~ 9인	51.18	35.51
	10~ 19인	63.26	37.56
	20~ 49인	69.63	36.51
	50~ 99인	77.93	29.39
	100~199인	80.01	31.35
	200~499인	86.95	23.47
	500인 이상	100.00	21.98
	제조업총계	87.41	24.76
1979 :			
	5~ 9인	62.25	40.81
	10~ 19인	73.29	43.79
	20~ 49인	80.06	43.62
	50~ 99인	85.23	38.80
	100~199인	87.92	37.13
	200~499인	90.67	31.89
	500인 이상	100.00	27.53
	제조업총계	91.06	31.73

資料 : 附錄 참조.

年の 경우에는 大企業의 賃金を 100으로 할 때 91(200~499人), 88(100~199人), 85(50~99人), 80(20~49人), 73(10~19人), 62(5~9人)이고 平均은 91이다. 規模別 賃金隔差는 거의 모든 規模에 있어서 최근에 이를수록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附錄참조). 따라서 13年동안 韓國經濟의 賃金隔差는 크게 감소해오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다음에는 平均 賃金에 대한 規模別 寄與率을 年度別로 비교해보기로 한다. 〈表-11〉은 平均 賃金에 대한 規模別 寄與率을 나타내고 있다(사용된 公式은 表-11에 있음).

平均 1人當 賃金에 대한 規模別 寄與率은 規模別 従業員數 구성비와 1人當 賃金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된다. 1966年の 規模別 寄與率은 5~9人부터 100~199人까

〈表-11〉

平均 1人當 賃金에 대한 規模別寄與率

(단위 : %)

항목 규모	1966년		1976년		1979년	
	기 여 율	누적기여율	기 여 율	누적기여율	기 여 율	누적기여율
5~ 9인	9.38	9.38	2.19	2.19	2.47	2.47
10~ 19인	9.58	18.96	3.06	5.25	3.57	6.04
20~ 49인	11.58	30.54	6.47	11.72	8.51	14.55
50~ 99인	10.08	40.62	7.66	19.38	9.06	23.61
100~199인	9.89	50.51	11.81	31.19	11.68	35.29
200~499인	16.49	67.00	17.21	48.40	17.00	52.29
500인 이상	33.00	100.00	51.59	100.00	47.71	100.00

資料 : 附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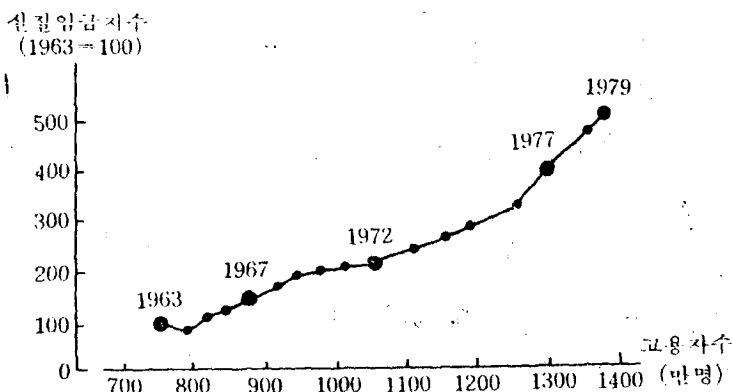
註 : (1) 사용된 公式는  $\frac{R}{L} = \sum \left( \frac{L_i}{L} \right) \left( \frac{R_i}{L_i} \right)$ . (R : 급여액)

(2) 평균 1인당 임금을 100.0으로 보고 계산된 기여율임.

지의 中小企業規模에서 약 10% 정도를 각각 나타내고 있으며 200~499人 規模에서는 17%, 500人 이상의 大企業에서는 33%를 寄與하고 있다. 그러나 1976년에는 1966년에 비해서 小規模일수록 寄與率이 감소하고 있고 大規模일수록 증가하고 있는데 大企業의 寄與率은 1966년의 33%에서 무려 52%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1979년에는 1976년에 비해서 規模가 큰 企業의 寄與率이 약간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不況으로 인해 이들 企業에서 雇傭 증가가 다소 둔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賃金隔差도 감소했기 때문이다. 規模가 큰 企業에서 寄與率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이같은 企業에서 雇傭 증가가 높았기 때문인데 이것은 勞動市場과 賃金の 二重構造의 해소에 관해서 매우 중요한 示唆點을 지니고 있다. 비록 勞動所得 分配率은 다른 規模에 비해서 가장 낮다 할지라도 大企業의 成長은 이 規模에서 가장 높은 雇傭증가를 가져왔으며 다른 規模에 비해서 가장 높은 賃金を 지불했기 때문에 賃金隔差의 해소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그동안 平均 1人當 賃金隔差가 大企業의 賃金を 100으로 할때 1966년의 79에서 1976년에는 87로, 그리고 1979년에는 다시 91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는 바로 이에 관한 立證이라고 할 수 있다.

賃金の 二重構造가 經濟 전반에 걸쳐서 어떻게 해소되어오고 있는가를 관찰하기 위해서 우리는 [圖-1]과 같은 賃金-雇傭 曲線을 사용하고 있다. 이 曲線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용된 資料는 分配國民所得計定上의 被傭者報酬, 總就業者數, 그리고 消費者 物價指數이다. 이들을 바탕으로 1人當 名目賃金과 實質賃金を 계산한 다음 從軸은 1963年을 기준으로 한 1人當 實質賃金指數를, 그리고 橫軸은 雇傭者數를 나타내고 있다. 特定年度의 雇傭者數와 1人當 實質賃金과의 一致點의 軌跡에

서 유도된 이 曲線은 勞動市場에서 勞動에 대한 需要와 勞動의 供給이 均衡을 이룬다는 假定을 전제로 하고 있다.



[圖-1] 韓國의 賃金—雇傭 曲線, 1963~1979.

韓國의 賃金—雇傭 曲線에 의하면, 1次5個年 計劃이 끝나는 1966년부터 3,4年 동안 實質賃金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가 3次計劃 전후에는 비교적 안정된 수준을 유지했으나 4次計劃 후반기부터는 다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이 기간 동안의 雇傭增加 추세와 관련해서 설명할 수 있다. 주로 2次計劃 기간에는 1次計劃의 결과로 인해 雇傭構造가 취약상태에서 다소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勞動市場의 緊縮은 實質賃金의 증가를 가져왔고 이는 곧 이어 農業人口를 非農業 부분으로 이동시킨 계기를 마련해주어 3次計劃 전후에는 勞動市場의 緊縮이 다소 풀리는 바람에 實質賃金은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이게 된 것이다. 그러다가 70年代 후반기부터는 그동안 年平均 雇傭增加率이 3.7% 이상을 기록해왔기 때문에 部門에 따라 勞動力 不足 현상이 야기되었고 그 결과로 實質賃金의 높은 증가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러면 高度成長 기간에는 비교적 緩晩한 傾斜를 이루다가 최근의 不況 기간에는 急激한 傾斜를 이루고 있는 賃金—雇傭 曲線의 형태는 韓國의 勞動所得 分配率의 변화와 관련해서 무엇을 示唆해주는가?

韓國의 勞動市場의 二重構造의 성격에 관해서 이미 언급한대로 雇傭—賃金 曲線의 緩晩한 傾斜는 古典學派의 勞動市場을 나타내고 急激한 傾斜는 新古典學派의 勞動市場을 나타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企業規模別 賃金隔差가 1970年을 전후하여 크게 감소되어오고 있는 추세는 이에 관한 實證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巨視的인 側面에서 韓國經濟는 이제 賃金의 二重構造가 해소되어가는 과정에 놓여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따라서 70年代末의 不況 기간에 勞動所得 分配率이 急増했던 이유는 不況으로 인한 勞動生産性의 낮은 증가 이외에도 부분적으로 勞動市場의 需給이 緊縮狀態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한 實質賃金의 증가에 기인했으리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결론은 앞으로 韓國의 勞動所得 分配率은 賃金증가를 통해서 증가하게 되리라는 점을 示唆해준다.

#### 4. 大企業의 成長과 勞動所得 分配率의 變化와 展望

韓國經濟에서 大企業의 成長은 勞動所得 分配率의 증가에는 寄與하지 못했다 할 지라도 勞動生産性의 증가와 雇傭의 높은 증가를 통한 賃金의 二重構造 해소에는 큰 寄與를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도 大企業 위주의 高度成長政策이 채택된다면 勞動所得 分配率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 것인가.

이제 1人當 名目賃金  $\left(\frac{W}{L}\right)$  과 1人當 名目附加價值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다고 가정하자.

$$\frac{W}{L} = a + b \left( \frac{Y}{L} \right)$$

그런데 附加價值에는 賃金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回歸係數  $a$  와  $b$  는 偏倚推定量이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위의 式을 다시 고쳐 쓰면,

$$\frac{W}{L} = a + b \left( \frac{W}{L} + \frac{S}{L} \right) \quad \left( \frac{S}{L} : \text{非賃金 附加價值} \right)$$

위의 式을 다시 정리하면,

$$\frac{W}{L} = \left( \frac{a}{1-b} \right) + \left( \frac{b}{1-b} \right) \frac{S}{L} = \alpha + \beta \frac{S}{L}$$

回歸係數  $\alpha$  와  $\beta$ 로부터  $a$  와  $b$  를 계산해 낼 수 있다. 그 결과는 <表-12>에 나타나 있다.

回歸分析의 결과에 의하면 5~9人的 가장 작은 規模를 제외하고 어느 規模에 있어서나 企業規模가 커질수록  $b$  의 크기는 작아지고 있다. 예를 들면 500人 이상의 大企業의 경우에  $b$  는 0.26으로서 平均의 0.29보다 낮다.

<表-12>

1人當 賃金에 대한 1人當附加價値의 回歸係數

규모 \ 항목	a	b	R <sup>2</sup>	규모 \ 항목	a	b	R <sup>2</sup>
5~ 9人	-13.29	0.37	0.96	100~199人	-37.10	0.34	0.93
10~ 19人	-23.07	0.40	0.95	200~499人	-54.10	0.29	0.94
20~ 49人	-27.03	0.40	0.94	500人 이상	-67.20	0.26	0.97
50~ 99人	-43.51	0.35	0.93	평 균	-45.42	0.29	0.96

資料 : 附錄 참조.

위의 결과가 示唆하는 바는 大企業이 資本—勞動 비율을 높혀 한 單位의 生産증가를 시도하게 되면 다른 規模에 비해서 賃金 증가에 상대적으로 낮은 效果를 가져오게 되리라는 점이다. 사실 韓國經濟에서 大企業의 成長이 獨寡占化 현상을 가져왔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으며<sup>27)</sup> 企業이 獨寡占 형태를 취하게 되면 競爭의 경우에 비해서 利潤이 훨씬 높다는 것은 일반화된 理論이다. 따라서 勞動市場이 二重構造를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의 成長이 獨寡占 형태의 大企業에 의해서 주도된다면 經濟成長率이 빠를수록 非勞動所得 分配率이 증가하게 된다는 R. Nelson의 二重構造的 技術模型이나 分配國民所得計定上の 利潤率의 증가 추세가 示唆하듯이 相對的 勞動所得 分配率은 감소 또는 안정의 추세로 변화해 갈 것이다. 그러나 大企業의 成長이 일단 勞動市場의 二重構造를 완전히 해소시킨 다음에는 「필립스 커브」 理論이 示唆하듯이 賃金은 勞動市場의 緊縮狀態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先進國에서 처럼 相對的 勞動所得 分配率은 증가하리라고 기대된다.

다음에는 1966年, 1976年, 그리고 1979年 세 해에 걸쳐 企業規模와 勞動所得 分配率 간의 順位相關係數를 알아 보기로 하자. <表—13>은 이에 관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表—13> 企業規模와 勞動所得 分配率 간의 順位相關係數

구 모	노 동 소 득 분 배 율		
	1 9 6 6	1 9 7 6	1 9 7 9
5~ 9인	30.90	35.51	40.81
10~ 19인	29.63	37.56	43.79
20~ 49인	28.91	36.51	43.62
50~ 99인	28.45	29.39	38.80
100~199인	26.44	31.35	37.13
200~499인	19.66	23.47	31.89
500인 이상	21.50	21.98	27.53
기업규모와 노동소득분배율간의 순위 상관계수	-0.96	-0.85	-1.00

資料: 附錄 참조.

이에 따르면 세 해의 企業規模와 賃金所得 分配率간의 順位相關係數는 모두 대단히 有意하며 負의 관계를 보여준다. 企業規模가 클수록 資本集約度가 높아 附加價值 가운데서 賃金費用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기 때문에 負의 相關關係가 기대된다. 이 결과는 또한 經濟成長이 大企業의 주도에 의해서 이뤄질 때 經濟 전반에 걸쳐

27) 李奎億, 市場構造와 獨寡占規制——韓國의 製造業을 中心으로 (韓國開發研究院, 1979), pp. 247-50.

勞動所得 分配率은 증가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示唆해준다.

지금까지 우리는 韓國經濟의 技術과 貨金의 二重構造의 성격이 6,70年代의 高度成長 기간 동안 韓國의 勞動所得 分配率의 증가를 가져오지 못한 요인임을 분석해 왔다.

## IV. 結 論

이 글에서 우리는 勞動所得 分配率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세계의 여러 나라와는 달리 韓國에서는 특히 高度成長 기간을 통해 감소 또는 안정의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지적한 후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분석하고 있다. 분석의 결과에서 얻은 要約과 政策的 示唆點은 다음과 같다.

### 1. 要 約

〈1〉國民所得에 대한 被傭者報酬 비율과 製造業 附加價値에 대한 給與率 비율을 바탕으로 勞動所得 分配率을 國際比較한 결과 여러 先進國에서는 勞動所得 分配率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 수준도 매우 높다. 그러나 韓國은 6,70年代의 高度成長 기간 동안에 被傭者報酬 비율은 약 40%, 給與額 비율은 약 25% 수준에서 감소 또는 안정의 변화 추세를 보이다가 70年代末의 不況 기간 동안에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高度成長을 경험했던 日本과 臺灣의 경우에도 勞動所得 分配率은 지속적인 증가를 해오고 있고 그 수준도 韓國보다 훨씬 높다.

〈2〉韓國에서는 왜 高度成長 기간 동안에 勞動所得 分配率이 감소 또는 안정의 변화 추세를 보여왔는가에 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貨金과 生産性 증가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들의 증가율은 高度成長 기간에는 年度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비슷했기 때문에 勞動所得 分配率은 감소 또는 안정의 변화 추세를 보였고 70年代末의 不況 기간에는 貨金증가가 勞動生産性 증가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에 勞動所得 分配率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았다.

〈3〉그러나 勞動生産性和 貨金 증가를 결정하는 要因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技術과 貨金의 二重構造模型을 바탕으로 韓國의 大企業의 成長을 분석했다. 韓國의 高度成長政策은 國內貸出 利子率, 海外借款 利子率 및 海外借款의 先別的 配分, 社會間接資本에 대한 政府投資, 換率 및 關稅政策등을 통해 海外資本과 技術 導入에 유리한 條件을 마련함으로써 技術의 二重構造를 深化시켰다. 이 결과로, 1966년에 從業員 500人 이상의 大企業의 事業體 구성비는 製造業 전체의

0.5%에 불과했으나 1976년에는 2.0%로 증가했고, 從業員 구성비는 25.9%에서 43.4%로, 給與額 구성비는 33.0%에서 47.7%로, 그리고 附加價値 구성비는 37.2%에서 55.0%로 자자 증가하게 되었다.

〈4〉大企業의 成長은 從業員數 구성비의 높은 증가와 모든 企業規模 가운데서 가장 높은 勞動生産性으로 인해 製造業 平均 勞動生産性 증가에 대해서 큰 寄與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大企業의 勞動所得分配率은 모든 規模 가운데서 가장 낮기 때문에 그 附加價値 구성비는 높게 증가했다 할지라도 製造業 平均 勞動所得 分配率의 증가에는 사실상 負의 效果를 가져오게 되었다. 따라서 韓國의 高度成長 기간 동안 被傭者報酬 비율과 製造業 給與額 비율로 나타난 勞動所得 分配率이 감소 또는 안정의 추세로 변화해온 이유는 大企業의 빠른 成長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5〉企業規模別 賃金隔差로 본 賃金の 二重構造는 高度成長의 초기에는 매우 심했다. 賃金の 二重構造는 勞動市場에서 勞動의 剩餘로 인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다. 賃金이 二重構造를 이루고 있을 때는 勞動生産性和 賃金 사이에 有機的인 「메카니즘」이 마련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賃金이 가장 높은 大企業의 成長은 附加價値 구성비의 높은 증가를 통해 높은 雇傭 증가를 가져옴으로써 平均 賃金 증가에 큰 寄與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賃金隔差는 최근에 이르러서 크게 감소되고 있는데 이 점에서 볼 때 1970年代末의 不況 기간을 통해 勞動所得 分配率 이 높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는 韓國經濟에서 勞動市場의 二重構造가 점점 해소되어 오고 있다는 점을 示唆해주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韓國의 勞動所得 分配率은 賃金증가를 통해 계속 증가해 갈것으로 기대된다.

〈6〉그러나 韓國이 앞으로도 大企業 위주의 高度成長政策을 펴 나간다면, 高度成長 기간 동안에 그랬던 것과 같이 勞動市場의 二重構造가 해소되지 않는한 勞動所得 分配率은 별로 증가해갈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다.

## 2. 政策的 示唆點

1982年度에 物價上昇率이 약 15%정도가 될 것으로 전제하고 名目賃金上昇率을 약 10% 정도로 規制하고 있는 최근의 賃金規制政策은 所得分配의 次元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賃金規制政策은 實質賃金上昇率을 5% 감소시키고, 거기 에다 만일 勞動生産性 증가가 5%가 된다고 하면, 勞動所得 分配率을 10%나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1981년의 製造業 勞動所得 分配率이 30%라고 가정하면 1982년의 勞動所得 分配率은 27%가 되는 셈이다. 이처럼 높은 감소는 6,70年代를 통해서 한번도

있어 본적이 없다.

특히 韓國政府는 企業의 財務構造가 더욱 惡化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최근 두 차례에 걸쳐 平均 金利를 약 2%나 引下했다.<sup>28)</sup> 이와같은 金利引下政策이 景氣의 活性化나 企業의 財務構造의 惡化防止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인지에 관해서 지금 으로서 評價하기는 어렵지만 企業의 利潤率이 감소하는 것을 막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6,70年代를 통해 여러가지 成長政策과 관련해서 資本에 대한 收益率의 높은 증가를 경험해왔던 企業들이 不況 기간 동안 收益率이 감소한 다고 해서 다시 政府의 보호를 받게 된다면, 한편으로는 貸金引上이 規制받는 처지에서 그것은 衡平의 原則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企業의 經營合理化를 저해하는 결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勞動組合의 勢力을 인정하지 않고 最低貸金制와 같은 貸金政策을 실시하지 않았던 韓國政府가 不況이라는 이유로 勞動의 剩餘 상태를 벗어나려고 하는 勞動市場을 貸金政策을 통해 規制한다는 것은 效率的 資源配分の 次元에서도 고려되어야 한다. 政府는 勞動市場을 規制하는 대신 長短期의 人力需給計劃을 수립하여 勞動市場의 緊縮을 완화시켜줌으로써 企業의 經營合理化와 勞動所得 分配率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28) 1981년 10월 현재, 韓國의 外債 부담액은 340억달러이고 연간 利子부담액은 35억달러에 이른다는 國會의 論議와(1981年 10月 9日字 朝鮮日報) 작년과 금년 2년동안 借款利子 등으로 46억달러가 더 나갔다는 申秉鉉 副總理의 TV對談(1981年 11月 14日字 東亞日報)은 韓國 企業의 당면문제와 관련된 金利引下政策에 상당한 說得力을 갖고 있다.







## 《參考文獻》

- A.B. Atkinson, *The Economics of Inequality* (Clarendon Press, 1975).
- A. Berry and M. Urrutia, *Income Distribution in Columbia* (Yale University Press, 1976).
- E.H. Phelps Brown and P.E. Hart, "The Share of Wages in National Income," *EJ* (June, 1952).
- M. Bronfenbrenner, *Income Distribution Theory* (Macmillan, 1971).
- J. Fei and G. Ranis, *Development of Labor Surplus Economy: Theory and Policy* (Yale University, 1964).
- Wontack Hong, *Factor Supply and Factor Intensity of Trade in Korea* (Korea Development Institute, 1976).
- \_\_\_\_\_, *Trade, Distortions and Employment Growth in Korea* (Korea Development Institute 1979).
- H.G. Johnson, *The Theory of Income Distribution* (Gray-Mills, 1973).
- Ae Sil Kim, Technological Progress, Diffusion of Technology and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Labor Productivity (Ph. D. Dissertation submitted to the University of Hawaii, Dec., 1977).
- Kwang Suk Kim and M. Roemer, *Growth and Transformation—Studies in the Moderniz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1945—75* (Harvard University Press, 1979).
- J. King and P. Regan, *Relative Income Shares* (The Macmillan Press LTD, 1976).
- H. Lydall, *A Theory of Income Distribution* (Clarendon Press, 1979).
- D. Morawetz, "Employment Implications of Industrializ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A Survey," *EJ* (Sept., 1974).
- R. Nelson, "A Diffusion Model of International Productivity Differences in Manufacturing Industry," *AER* (Dec., 1968).
- Shunsaku Nishikawa, ed., *The Labor Market in Japan—Selected Readings* (University of Tokyo Press, 1980).
- F.L. Pryor, "The Size of Production Establishment in Manufacturing," *EJ* (June, 1972).
- A. Romeo, "Interindustry and Interfirm Differences in the Rate of Diffusion of an Innovation," *RES* (Aug., 1975).
- Se-Il Park, Wages in Korea: Determination of the Wage Levels and the Wage Structure in A Dualistic Labor Market (Ph. D. Dissertation submitted to the Cornell University, Aug., 1980).
- Koji Taira,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Labor Market in Japan*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0).
- 金愛實, 「二重構造的技術模型과 韓國製造業에 관한 分析」, 産業經濟研究 第五輯(全南大學校 企業經營研究所, 1978).

- 朴東雲, 「韓國의 相對的 所得分配」, 地域開發研究 第10卷 (全南大學校 地域開發研究, 1978).
- , 「韓國의 雇傭狀態의 變化에 關한 評價」, 地域開發研究 第12卷 第1號 (全南大學校 地域開發研究所, 1980).
- 裴茂基, 「生産性和 賃金과의 關係」, 勞動經濟論集 第2卷 第1號 (韓國勞動經濟學會, 1978).
- , 「所得分配」, 邊衡尹 金潤煥 編著 韓國經濟論 (裕豐出版社, 1977).
- 李奎億, 市場構造와 獨寡占規制——韓國의 製造業을 中心으로 (韓國開發研究院, 1977).
- 朱鶴中(編), 韓國의 所得分配와 決定要因(上) (韓國開發研究院, 1979).
- 經濟企劃院,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1967년 자료는 韓國產業銀行이 발간).
- , 경제활동인구연보.
- 韓國銀行, 경제통계연보.
- , 韓國의 國民所得.